3부 권위와 자증 — 왜 믿는가

성경론 12편 성경은 스스로 빛을 낸다 · 자증성

오웬 2장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가 · 오웬 4장 성경 안에 있는 신적 기원의 증거(자증하는 빛과 능력) · 신앙고백서 1.5 앞부분(1.4 참고) · 바빙크 5장 성경([108], [112], [116]) · 프레임 부록 성경이 성경을 변호한다 · 신앙고백서 1장 1.5

> ❓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결국 증거 없이 그냥 믿으라는 거야?**

🧭 흐름 한눈에

"증거 없이 믿으라는 거야?"라는 물음에 오웬은 먼저 질문을 고쳐 세운다. 따질 것은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마지막에 기대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다. 오웬의 답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다. 그 권위는 교회의 보증 없이 성경 자신이 드러낸다. 창조와 양심도 스스로 하나님을 증언하는데, 그 위에 높여진 말씀은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바빙크는 이 논의가 성경의 자기증언에서 출발해야 하며 학문이 중립적 심판자로 나서서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거든다. 오웬 4장은 자증의 방식을 '빛'과 '능력'으로 풀고, 고백서 1.5는 그 빛에 여덟 가지 이름을 붙인다. 못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빛의 문제가 아니라 눈의 문제다. 마지막으로 프레임은 "순환 논리 아니냐"는 반론에 이렇게 답한다. 궁극적 기준을 세울 때는 누구도 일종의 순환을 피할 수 없다. 결론은 이렇다. 증거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가장 큰 증거 위에 서는 것이다. 그 빛이 내 눈에 확신으로 닿는 일은 다음 편, 곧 1.5 뒷부분의 성령의 내적 증거로 이어진다.

📜 절별 정리

📜 1. 질문을 바로 세우기: '의견'이 아니라 '신적 믿음' (오웬 2장)

그런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책 전체가 사람이 지어낸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말이다. 오웬은 하나님이 성경을 다른 책처럼 받지 말라고 요구하신다고 말한다. 다른 책은 그럴듯한 논거를 쌓아 굳힌 '의견'으로 받아도 된다. 그러나 성경은 '신적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최종적으로 기대는 이유, 곧 '형식적 근거'는 하나뿐이어야 한다. 성경 바깥의 논거들은 반론을 물리치는 데 쓸모가 있고 간접적으로 믿음을 돕기도 한다. 그러나 믿음의 토대에는 끼어들 수 없다. 그러니 이 편의 질문에 대한 오웬의 첫 답은 이것이다. 증거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증거들 사이에 순서를 매기라는 것이다.

1. 우리는 직접 계시를 받지 않은 세대다
2. 대상은 기록된 말씀 '전체'다
3. 성경은 '의견' 아닌 '신적 믿음'으로 받는다
4. 믿음의 형식적 근거는 하나뿐이다
5. 외적 논거는 방패일 뿐 바닥은 아니다

> **베드로후서 1:16**
>
> ★여러 책 — 오웬 2장·오웬 4장·프레임(1:16-21).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질문의 반대 축을 세운다
>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 **데살로니가후서 1:7-10**
>
>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형벌. 성경을 '신적 믿음'으로 받을 의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준다
>
> 7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8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형식적 근거는 하나뿐이다. 다른 논거들은 반론을 물리치는 데 쓸모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토대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오웬

📜 2. 토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오웬 2장 · 신앙고백서 1.4)

오웬은 자기 답을 한 명제로 내놓는다.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이 성경 기록자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권위는 성경 자체로 입증된다. 근거는 선지자들과 우리가 같은 구조 안에 있다는 데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선지자들에게 그 자체의 증거를 동반하고 왔다. 그 음성이 그들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올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성경에 권위를 준다는 주장은 스스로 무너진다. "왜 하필 이 책인가?"라고 물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라고 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발 물러선 반론도 있다. 성경이 "그 자체로는 권위가 있지만 우리에게 닿으려면 교회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웬은 두 가지로 답한다. 첫째, 그 논리대로라면 하나님도 자신을 계시하실 수 없다. 둘째, 권위는 본질상 관계다. 백성 없는 왕은 말로만 왕이다. 그러니 '그 자체로'와 '우리에게'를 나눌 수 없다.
반론대로라면 사람이 증언을 붙여 주기 전에는 성경의 명령을 어겨도 죄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고백서 1.4도 같은 말을 한다.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

1. 유일한 토대는 하나님의 권위다
2. 그 권위는 성경 자체로 입증된다
3. "왜 이 책인가?" → "하나님 말씀이니까"
4. 권위는 관계라서 둘로 쪼갤 수 없다
5. 내가 인정하기 전에도 명령은 나를 향한다

> **히브리서 1:1**
> ★여러 책 — 오웬 2장·고백서 1.1(1:1-2). 하나님이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성경의 목소리가 곧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근거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에베소서 2:20

★여러 책 — 오웬 2장·고백서 1.2·1.10. 믿음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곧 그들을 통해 주신 말씀 위에 선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요한복음 17:17

★여러 책 — 오웬 2장·바빙크 [108]·프레임. “주의 말씀은 진리”. 누가 인정하기 전부터 말씀은 이미 진리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야고보서 2:10-11

하나를 어겨도 명령하신 분을 거스른 것이다. 불순종이 악한 까닭은 명령하는 분의 권위에 있다

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사람이 성경에 권위를 준다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왜 하필 이 책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 오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 신앙고백서 1.4

오웬은 '일반 귀납'으로 명제를 받친다. 하나님은 세 길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창조와 섭리의 일, 사람 마음에 심긴 본성의 빛과 양심, 그리고 말씀이다. 하나님의 일에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의 인장이 찍혀 있다. 그래서 전통도, 기적도, 교회의 권위도 없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낸다. 양심도 증인을 세우지 않고 자기 저자를 드러낸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고 고백한다. 낮은 계시인 자연과 양심도 스스로 하나님을 증언한다. 그렇다면 그 위로 높여진 말씀이 다른 증언이 거들 때까지 어둡게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시편 19편도 이 비교를 한다. 앞부분은 하늘에 '소리'를 돌리고, 뒷부분은 말씀을 그보다 높인다. 고백서 1.1도 같은 구절들로 일반계시를 말한다. 다만 고백서는 일반계시의 '부족함'을 앞세우고, 오웬은 일반계시도 '스스로 증언한다'는 점을 “하물며 말씀이랴”의 디딤돌로 쓴다.

1. 세 길: 창조·섭리, 양심, 말씀
2. 하나님의 일엔 신성의 인장이 있다
3. 말씀은 모든 '이름' 위에 높여졌다
4. 낮은 계시가 증언한다면 말씀은 더욱
5. 말씀의 자증을 부정하면 무신론의 둑이 터진다

> **로마서 1:18-20**
> ★여러 책 — 오웬 2장·고백서 1.1(1:19-20).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핑계할 수 없다
>
>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 **로마서 2:14-15**
> ★여러 책 — 오웬 2장·오웬 4장·고백서 1.1. 마음에 새긴 율법과 양심의 증언. 본성의 빛의 근거
>
>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시편 19:1-4

★여러 책 — 오웬 2장·고백서 1.1(19:1-3). 하늘이 말 없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비교의 창조 쪽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19:7-11

★여러 책 — 오웬 2장·프레임·고백서 1.7(19:7). 말씀의 완전함과 확실함. 창조보다 높여진 말씀 쪽

[7]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138:2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하물며 논증의 중심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무엇인지로써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선언한다." — 오웬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해 보라. 무신론의 홍수를 막던 둑이 얼마나 빨리 터지는지 보게 될 것이다.” — 오웬

📜 4. 성경은 자기에 대해 말한다 (바빙크 5장)

오웬은 4장 첫머리에서 앞 장(3장)을 '성경이 자기에 대해 직접 하는 증언'을 모은 장으로 요약한다. 자증 논증 앞에 성경의 자기증언이 놓여 있다는 뜻이다. 이 편 재료에는 오웬 3장이 없으므로 바빙크가 그 자리를 메운다. 바빙크는 성경의 실제 모습(현상)을 먼저 조사해 거기서 영감론을 끌어내자는 '귀납적 방법'에 답한다. 진짜 질문은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다. 현상은 성경의 자기증언을 뒤집는 반대 증인이 될 수 없다. 인간의 학문도 어느 부분을 믿을지 정해 주는 중립적 제삼자가 될 수 없다. 출발점은 예수와 사도들의 태도다. 그들은 “기록되었으되” 한마디로 논쟁을 끝냈다. 예수를 선생으로 진지하게 받는다면 성경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도 받아야 한다. 정경도 같은 이치다. 그 책들은 처음부터 그 책 자체를 근거로 하나님의 글로 받아들여졌다. 쓰게 하신 성령과 받아들이게 하신 성령은 같은 분이다. 교회는 정경을 만들지 않고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래서 바빙크는 성경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한다(이 편은 단권 축약본을 기준으로 한다).

1. 출발점은 성경의 자기증언이다
2. '현상'이 자기증언을 뒤집지 못한다
3. 학문은 중립적 심판자가 아니다
4.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성경관도 받는다
5. 교회는 정경을 만들지 않고 받았다

> **요한복음 10:35**
> ★여러 책 — 바빙크·프레임.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예수의 성경관이 자기증언의 기준이다

마태복음 4:4

★여러 책 — 바빙크·고백서 1.1. “기록되었으되”. 예수가 구약을 최종 권위로 쓰신다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디모데후서 3:16

★여러 책 — 바빙크·프레임·고백서 1.2·1.4.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것이다. 성경이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19-21

★여러 책 — 바빙크·프레임·고백서 1.4·오웬 4장(1:19). 예언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나왔다. 이 편 전체의 기둥 구절

> 19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3:16

★여러 책 — 바빙크·프레임·고백서 1.2. 바울 서신이 “다른 성경”과 같은 자리에 있다. 책이 스스로 권위를 드러낸 예

>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우리를 판단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 바빙크

📜 5. 빛은 증인이 필요 없다, 교회는 등대일 뿐 (오웬 4장)

오웬 4장은 성경 안에 본래 갖추어진 '내적 논거'로 넘어간다. 이 근거는 아직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이성에도 닿는 '공통의 수단'이다. 다만 내용만 떼어 보면 다른 책과 같아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보아야 한다. 오웬은 스스로를 증거하는 것이 세상에 두 가지라고 말한다. 빛과 능력이다. 해가 떠오르면 낮이 되었다고 증명해 줄 증인은 필요 없다. 어린아이가 촛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와 점잖은 증인들을 불러 빛이 들어왔다고 증명하려 한다면 우스운 일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엄을 비추는 영적인 빛, 곧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교회의 자리도 여기서 정해진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이 빛을 높이 들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일은 섬기는 방식으로 할 뿐 권위를 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설교와 성례와 진리 안에서의 삶이 모두 이 빛을 드는 일이다. 고백서 1.5도 같은 구절(디모데전서 3:15)을 들어, 교회의 증언이 우리가 성경을 높이 보도록 이끈다고 말한다.

1. 스스로 증거하는 두 가지: 빛과 능력
2. 빛은 자기 쪽에서 드러날 일을 다 한다
3. 해와 촛불은 증인이 필요 없다
4. 성경은 하나님의 위엄을 비추는 빛이다
5. 교회는 빛을 드는 기둥, 빛 자체가 아니다

> **에베소서 5:13**
>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은 스스로 드러난다는 원리 자체
>
>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 **베드로후서 1:19**
> ★여러 책 — 오웬 4장·고백서 1.4·바빙크·프레임.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저자의 위엄으로 빛난다
>
>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시편 119:105

★여러 책 — 오웬 4장·고백서 1.7·바빙크 [117]. 발의 등이요 길의 빛. 말씀은 빛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마태복음 5:14

빛은 숨겨질 수 없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3:15

★여러 책 — 오웬 4장·고백서 1.5.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빛을 높이 들 뿐 빛을 만들지 않는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빛을 높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빛은 아니다. 교회는 빛을 증언하지만, 그 빛이 드러나도록 신적 광선 한 줄기도 켜지 못한다." — 오웬

📜 6. 그 빛은 무엇으로 보이나: 여덟 가지 증거 (신앙고백서 1.5 앞부분 · 오웬 4장)

오웬은 성경의 빛을 이렇게 정의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진리와 거룩과 권위가 비치는 광채다. 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에 남겨 두신 하나님의 자국이다. 이 자국은 '확실한 표지'(헬라어 테크메리아)가 되어 성경을 어떤 피조물의 작품과도 구별해 준다. 고백서 1.5는 이 빛을 여덟 가지 이름으로 짧게 고백한다. 하늘에 속한 내용, 교리의 효력, 문체의 위엄, 부분들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목적, 구원의 유일한 길의 온전한 발견, 비길 데 없는 많은 탁월함, 온전한

넉넉하다고 말한다. 고백서가 몇 줄로 고백한 것을 오웬은 빛과 능력이라는 비유로 길게 논증한다. 다만 고백서는 바로 이어서 “그러나” 하고 방향을 튼다. 온전한 확신은 성령의 내적 일에서 온다는 것이다. 그 대목은 다음 편의 몫이다.

1. 빛 = 하나님의 위엄·진리·거룩·권위의 광채
2. 성령이 성경에 찍어 둔 하나님의 자국
3. 고백서는 그 빛을 여덟 가지로 이름 붙인다
4. 성경은 스스로를 '넉넉히' 증명한다
5. 이어지는 “그러나”: 온전한 확신은 성령께

> **시편 19:7-8**
> ★여러 책 — 오웬 2장·4장·고백서 1.7·프레임. 말씀의 완전함과 눈을 밝게 함. '온전한 완전함'과 겹쳐 읽을 수 있다(오웬이 든 구절. 항목과의 짝짓기는 이 편의 정리)
>
> 7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 **고린도전서 2:9**
>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 사람의 기대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으로, '하늘에 속한 내용'과 겹친다(오웬 4장이 든 구절)
>
>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 함과 같으니라

> **디모데후서 3:15**
> ★여러 책 — 오웬 4장·바빙크·고백서 1.6·프레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의 길의 온전한 발견'과 겹친다
>
>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것들로 성경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넉넉히 증명한다." — 신앙고백서 1.5

"이 빛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진리와 거룩과 권위가 비치는 광채다. 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에 주시고 남겨 두신 것이다." — 오웬

📜 7. 못 보는 것은 빛 탓이 아니다 (오웬 4장)

반론이 예상된다. 성경의 빛은 영적인 빛이니 스스로 드러난다는 말이 약해지지 않느냐는 것이다. 오웬은 이 원리가 영적인 빛에 오히려 더 잘 들어맞는다고 답한다. 빛은 눈이 아니다. 빛은 눈의 결함을 고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시각장애인이 해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해가 해임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오웬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모두 즉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강한 전통과 선입견, 빛을 미워하는 욕망이 눈을 가린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증언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증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말씀이 아이의 손을 거쳐 오든 교회의 손을 거쳐 오든 권위는 말씀 자체에 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명하는 오웬의 방법은 단순하다. 섭리로 그 책이 그에게 전해져 읽히게 하고, 그다음은 말씀에 맡긴다. 프레임도 같은 구절(고린도후서 4:4)로 불신의 영적 원인을 인정한다. 다만 프레임은 그렇다고 반대자들의 추론을 분석하는 수고를 건너뛰지 말라고 덧붙인다.

1. 빛은 눈이 아니다
2. 못 보는 건 빛이 아니라 눈의 문제

4. 하나님의 증언이 사람의 증언보다 크다

5. 증명법: 책을 건네고 말씀에 맡긴다

요한복음 1:5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못 본다고 빛의 효력이 깎이지 않는다

>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20-21

빛 앞에서 사람의 반응이 갈린다. 빛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 드러날까 함이요 21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4:3-4

★여러 책 — 오웬 4장·프레임.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불신의 원인을 짚는다

> 3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 그 중에
>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요한일서 5:9

★여러 책 — 오웬 4장·고백서 1.4. 하나님의 증언이 더 크다. 사람의 증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빛은 눈이 아니다.” — 오웬

"하나님의 증언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증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증언이 더 크기 때문이다." — 오웬

📜 8. 능력도 스스로 증거한다 (오웬 4장)

스스로를 증거하는 두 번째 것은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다. 불은 열로, 소금은 맛으로, 해는 빛과 열로 자신을 증명한다. 오웬은 성경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린다는 데서 출발한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말로만 오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온다. 이 능력은 우리를 향해서도 일한다. 영혼을 구원하고, 양날 칼보다 예리하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역사도 증언한다. 이 말씀은 칼도, 대개는 기적도, 사람의 웅변도 없이 세상을 정복했다. 오웬은 이 효과들이 마음과 양심에 자리 잡는다는 점을 짚는다. 그래서 파라오의 마술사처럼 흉내 낼 수도 없고 꾸며 낸 것이라고 반박당할 수도 없다. 말씀은 마음을 찌르고, 죽이고, 회심하게 하고, 세우고, 위로한다. 고백서 1.5가 말하는 '교리의 효력'(가르침에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리다. 바빙크도 같은 히브리서 4:12로 "성경이 우리를 판단한다"고 말한다.

1. 작용하는 힘은 스스로를 증명한다
2.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3. 칼·기적·웅변 없이 세상을 정복했다
4. 효과의 자리는 마음과 양심이다
5. 양심 속 효과는 흉내 낼 수 없다

> **로마서 1:16**
>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의 목적은 구원이다
>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4]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5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온다. 능력이 확신을 준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히브리서 4:12

★여러 책 — 오웬 4장·바빙크 [116]. 살아 있고 활력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골로새서 1:6

복음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다. 말씀 능력의 역사적 증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칼 없이, 대개는 기적도 없이, 사람의 지혜나 웅변 없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동기만으로 이 말씀은 세상을 정복했다." — 오웬

📜 9. "그거 순환 논리 아니야?": 궁극적 기준과 질문의 해결 (프레임 부록 · 오웬 4장)

모르몬경도 그렇게 주장한다”는 반론에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주장은 증거와 맞대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증거는 언제나 각자의 전제를 거쳐 읽힌다. 그리고 궁극적 기준을 세울 때는 일종의 순환을 피할 수 없다. 다른 기준에 호소하면 그 기준이 궁극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높은 보증자는 없다는 오웬의 논리와 같은 방향이다. 그렇다고 프레임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로 끝내지 말라고 한다. 비신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역사적 원자료로 읽게 하라는 것이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생각의 기준까지 바꾸는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점은 숨기지 말라고 한다. 또 자기 증언은 두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퍼져 있다. 오웬은 질문 전체를 이렇게 매듭짓는다. 성경의 자기 증언은 하나님 자신의 증언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일이다. 빛과 능력이라는 근거와 떨어진 믿음은 오히려 다른 어떤 책을 믿는 데에도 똑같이 통할 방편에 불과하다. 결국 오웬과 프레임이 경계하는 것은 '증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근거 없는 믿음'이다.

1. 궁극적 기준엔 일종의 순환이 불가피하다
2. 증거는 언제나 전제를 거쳐 읽힌다
3. 비신자는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게 하라
4. 자기 증언은 성경 전체에 퍼져 있다
5. 성경의 증언 = 하나님 자신의 증언

> **요한일서 5:10**
>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오웬은 장절 없이 인용)
>
>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 **디모데후서 3:16**
> ★여러 책 — 프레임·바빙크·고백서. 사람들이 영감의 '유일한 근거'로 여기는 구절. 프레임은 근거가 이것만이 아니라고 한다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illegible]

베드로후서 1:21

★여러 책 — 프레임·바빙크·고백서 1.4. 위와 같은 짝 구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출애굽기 24:4, 7

모세가 기록해 낭독하자 백성이 하나님의 요구로 받았다. 자기 증언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편만성의 예(프레임)

출애굽기 24:4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출애굽기 24:7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베드로후서 1:16

★여러 책 — 오웬 2장·4장·프레임.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확신이 속임이 아님을 보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성경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증언한다. 그 증언은 하나님 자신의 증언이다." — 오웬

🗣️ 다섯 목소리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하나님의 증언이 성경 자체의 빛과 능력으로 주어진다. 외적 논거는 반론을 막는 방패일 뿐 토대는 아니다.	말씀이랴”, 빛과 능력, 교회는 등대	말씀과 함께” 정도로 짧다. '순환 논증'이라는 현대적 반론은 직접 다루지 않는다. 성경의 자기 증언 구절 모음은 3장에 있어 이 편 재료 밖이다
신앙고백서 1.5	교회의 증언은 성경을 존중하게 이끌고, 성경은 여덟 가지 증거로 자신을 넉넉히 증명한다. 그러나 온전한 확신은 성령께 있다.	증거를 인정하되 순서를 매긴다: 교회 증언 → 성경의 증거 → 성령	여덟 가지를 이름만 대고 풀지 않는다(오웬이 풀어 준다). 순환 반론은 다루지 않는다
바빙크	성경의 자기증언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문이나 '현상'이 중립적 제삼자로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성경관, 교회는 정경을 받아들였을 뿐, 겸손	이 장은 영감이 중심이라 자증의 '방식'(빛·능력)은 길게 논증하지 않는다. 성령의 내적 증거도 한 줄 정도다
프레임	궁극적 기준은 더 높은 기준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일종의 순환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도 비신자에게 성경을 직접 읽게 하라.	전제, 자기 증언의 편만성, 반대자 추론의 분석	성령의 내적 증거는 거의 전개하지 않는다. 성경의 내적 탁월성 목록도 없다
워필드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음(이 편 재료에 워필드의 해당 장이 없음) — 오웬·바빙크가 메운다	— (프레임이 성경 주해 대목에서 워필드를 각주로 인용한다는 정도만 이 편 재료에 보인다)	이 편 전체

- 오웬은 자증의 '논리'(권위는 관계, 하물며 말씀이랴)와 '방식'(빛과 능력)을

- 바빙크는 출발점, 곧 성경의 자기증언과 그리스도의 성경관을 준다. 프레임은 순환 반론에 답하는 '인식의 구조', 곧 궁극적 기준과 전제를 준다.
- 오웬이 이름 붙여 다루지 않은 현대 반론(순환 논증)은 프레임이 메운다. 이 편 재료에 없는 오웬 3장(성경의 자기 증언)의 자리는 바빙크가 메운다.
- 네 재료 모두 이 편에서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짧게만 언급한다. 고백서 1.5 뒷부분이 그 자리에 이름을 붙였고, 다음 편이 그 자리를 채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자증성
성경이 교회나 사람의 보증 없이, 그 안에 있는 빛과 능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는 성질.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증언하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온전한 확신을 주시는 일.

영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과 삶의 잣대로 삼는 성경 66권의 목록.

불오성
성경이 속이거나 틀릴 수 없다는 성질. 고백서 1.5의 '틀림없는 진리'가 이것이다.

신적 믿음
그럴듯한 논거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기대는 믿음. 논거로 굳힌

어떤 것을 믿게 하는 단 하나의 '바로 그 이유'. 도움이 되는 다른 이유들과 구별된다.

본성의 빛

하나님이 모든 사람 마음에 심어 두신 하나님과 선악에 대한 타고난 앎. 양심이 그 목소리다.

내적 논거

성경 바깥이 아니라 성경 안에 본래 갖추어진, 신적 기원의 증거들.

궁극적 기준(전제)

모든 판단의 맨 밑바닥에 깔린 출발점. 그보다 높은 기준이 없어서 그것을 증명할 때 일종의 순환이 생긴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성경을 믿는 최종 근거는 증거의 양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다. 외적 증거는 방패이지 바닥이 아니다.
- 성경은 빛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고백서는 그 빛을 여덟 가지 증거로 고백하며 성경이 자신을 “넉넉히” 증명한다고 말한다.
- 교회는 빛을 높이 드는 등대일 뿐 빛에 권위를 더하지 못한다.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은 빛이 아니라 눈의 문제다.
- “순환 논리”라는 반론에는 이렇게 답한다. 궁극적 기준은 누구에게나 순환을 남긴다. 문제는 어떤 기준 위에 서느냐다.
- 빛은 충분하다. 그 빛이 내 마음에 온전한 확신으로 닿는 일은 성령의 내적 증거가 맡는다(다음 편).

📚 이 편의 책별 정리 노트

- 오웬 · 4장 성경 안에 있는 신적 기원의 증거 · 자증하는 빛과 능력
- 신앙고백서 · 1장 성경에 관하여 (10절, 1647 영문)
- 바빙크 · 5장 성경
- 프레임 · 성경이 성경을 변호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